

대학원생 교육A/04/

고등교육의 생태적 전환에 대한 가능성 탐색 - S대학교를 중심으로 -

박은아 (성균관대학교 교육학 박사수료)

I. 서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1990년대 이후부터 신자유주의 아래 자본의 논리에 좌지우지 되고 있다. 국가 입장에서 정치 철학이나 방향에 따라 그에 걸맞은 인재 혹은 노동자를 양산해내는 것이 당연한 처사일 것이다. 때문에 한 국가의 정치 철학이나 방향에 걸맞은 노동자를 양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의 모습이 그 철학 혹은 방향에 따라 바뀌는 것은 우리나라만 두고 봐도 인지상정으로 여겨진다. 자본이 만들어내는 상품은 1차적으로 자연으로부터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연은 한낱 이용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이전의 자연은 인간에게 나를 낳아준 엄마처럼 소중히 여기고, 의지해야 하는 대상이었으나, 자본이 투입되어 상품화 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은 인간에게 부를 축적하는데 필요한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자연에서 생겨난 인간이지만, 자연을 대상화하면서 인간은 자본을 생산하는데 매우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자본가들에게 인간들도 물질 대상화가 된 지 오래이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화, 상업화에 대한 비판으로 생태주의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자연에 의지하는 인간을 그린다. 생태주의를 표방하는 사회 운동과 연구는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는 국가차원의 정책과는 달리, 자연의 품으로 회귀하여 자연이 주는 만큼 그리고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자는 것이 기본 맥락이다. 생태주의에서 인간을 교육하는 모습은 인간을 기계, 혹은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간의 조화로운 관계와 상호간의 공존이 우선이다(노상우, 2003).

본 논문에서는 생태주의 안에서 인간의 교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생태주의에서 지향하는 인간의 삶에서 인간을 교육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교육학 영역에서 다루어진 생태주의 담론을 살펴보았다. 다만 고등교육 차원을 탐색하는데 관련 담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유로 유아단계에서 다루어진 담론은 제외하고, 고등교육 수준과 가까운 중등교육 차원의 담론(노상우, 2003/2007/2015; 노상우 김관수, 2007; 노상우 이강님, 2004; 노상우 張明, 2014; 노상우 황신택, 2004; 이은정, 1999; 정영희, 2006; 이상오, 2010; 이정은, 2013)을 참고하였다. 특히 고등교육 차원에서 생태적으로 다루어지는 교육의 모습에 대해 Ronald Barnett의 생태적 대학(Ecological University) 이론을 바탕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생태주의를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생태'를 표방하는 S대학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018년 기준, S대학교의 1주기 기관평가인증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S대학교가 대학 운영에 있어 생태주의적인 속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구현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S대학교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정책에서 생태적인 요소를 어느 수준 혹은 목적으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교육의 생태적 전환

우리 일상에서는 이미 생태적 전환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997년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가 체결이 되면서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슬로건 아래 국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여러 국내외 자연환경보호 관련 단체들의 각종 캠페인, 생태체험, 생태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생태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국내의 사회운동 단체를 포함한 의식 있는 조직들은 포스트 후쿠시마(post-fukushima) 시대로 명명하고, 탈핵을 전면에 내세우며 우리의 삶은 생태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풀무농업학교, 충남 홍성 마을, 변산 간디 학교 등의 대안적인 삶과 대안교육을 자처하고 있는 여러 조직들은 생태주의를 지향하는 삶과 교육을 몸소 보이고 있다. 교육을 중심으로 생태적 전환을 지향하는 조직을 예로 들면 서울의 하자센터와 성미산마을(학교), 그리고 분당의 이우학교(생협)를 들 수 있다. 특히 성미산마을의 경우, 마을 안에서 연대하여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어른들의 노력으로 마을 학교라는 실험도 이루어지고 있다. 박복선(2018)은 교육에서 생태적 전환이 필요한 이유로 4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구의 생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절박하고 근본적인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생태 위기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미래 세대가 스스로 생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 이유는 교육을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음 세대의 진로와 직업적으로 연결이 된다. 마지막으로 생태적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그 자체로 자연과 인간에게 아주 좋은 교육이기 때문이다. 생태교육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 기초하여, 죽음이 아닌 살림, 경쟁이 아닌 협력을, 분리가 아닌 연결을 지향한다.

2. 교육의 생태학적 전환을 탐색하기 위한 배경 철학

이은정(1999)에 따르면,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 번째, 인간과 비인간 관계에 대한 존경뿐 아니라, 인간 내의 관계를 존중하는 상호연관성이다. 두 번째, 생태주의는 인간사회와 자연세계를 이해하는데 뿌리박혀 있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찾아내고 극복하기 위해 자연으로 확대된 성숙된 자아를 기르는 것을 강조한다. 세 번째, 공존의 논리로, 생태적으로 합리적인 인간-자연체계는 인간과 자연 구성원이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네 번째, 소규모 생태공동체의 건설을 통해 협동적 참여라는 사회적 관계를 창출할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가 강화될수록 노동은 소외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생태적 환경 친화적인 단순경제체제로 이행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생태적 대안사회는 삶의 질 향상을 기본적 목표로 설정하여, 분산화와 소규모화를 지향하고 정치에 있어서 참여적 민주주의를, 경제에 있어서 지역 자립 경제 구조를 지향하고, 일반적 사회 구성의 원리로 수평적 연대와 상호 보완적 공존 원리를 추구한다. 여섯 번째, 생태윤리를 통해 타 생명체에 대한 인간 행동의 책임성을 강조하여, 전통적인 관점을 재정립하고 책임에 직면하는 생태지혜를 지녀야 한다. 일

곱 번째, 도구적 자연관에서 공존의 자연관으로, 외형적 생산 및 소유의 가치관에서 내면적 체험 및 감상의 가치관으로, 이기적 배타성에서 공동체적 합동으로, 공격적 지행성에서 조화로운 유연성으로, 타자와의 개별적 갈등에서 평화적 공존으로의 전환이 일어난다. 이런 생태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이은정(1999)은 교육생태학에서 인식적으로 지니고 있는 관심을 ①지성중심에서 감성의 회복으로, ②경쟁중심에서 관계중심으로, ③삶으로부터의 분리에서 삶과의 일치로, ④죽임에서 살림으로, ⑤단합에서 열림으로,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이은정,1999).

노상우(2003)에 따르면, 교육을 생태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상생 관계 회복, 생태계를 살리는 새로운 인간의 노력, 생태학적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구조의 개선,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생태윤리의 실천 등을 내포한다. 노상우(노상우,2003:3-6)가 설명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상생의 정신을 통해 상호 보완적 활동을 하면서 공존과 상생의 본성을 지닌 존재이다. 둘째, 상생을 위한 인간 정신을 도야하는 생태적 인본주의의 기본 정신이다. 세 번째, 생태윤리에 따른 생태적 교육원리에서 볼 때, 학교는 학생중심의 독립적 실체에 집중하기보다 교사와 학생의 상생의 관계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

정영희(2006)에 따르면, 생태적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관계적 교육을 가리킨다. 교육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지혜, 덕성, 인격, 사람다움을 필요로 하며 이것은 결국 타자를 위한 것이기도 한다. 타자를 위한다면 사랑 내지는 자비도 함께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적 교육을 통해 인간의 지혜와 자비를 키울 필요가 있다. 지혜와 자비는 소유하려는 욕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인간 욕망의 문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조순영(2009)에 따르면, 생태학의 관계성은 교육과정의 모든 학습 수준에서 고려되며, 분석적이고 직관적인 사고, 신체와 마음, 교과목을 통합하고, 지역 사회와 관련을 맺으면서 영혼과 정신을 연결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지식에 반영되며 지식의 본질을 총체적이고, 상호 관련된 통합적인 지식으로 만든다.

다음으로 이정은(2013)은 교육의 생태학적 접근을 교육생태학으로 명명하고, 교육생태학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교육은 상호의존적이면서도 상호 동등한, 그래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의 목적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생명사랑의 일깨움의 교육을 통해 생명이 지닌 본래적 의미를 이해하고 인간도 자연의 한 생명의 일부분임을 깨달아야 한다. 셋째, 조화와 협동으로서의 교육을 지향하여 교육의 기본 방향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자기 갱생적 조화를 찾아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교육생태학에서는 개개인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미시적 관점에서는 자유, 경쟁, 참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상호의존적 관계성을 이해하여 전체와 개인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교육을 지향한다. 다섯째, 교육생태학에서 상정하는 교육의 목적 역시로 자아 완성이다. 하지만 자아는 기존의 개인적 자아 개념을 초월하여 사회, 지구, 우주적 자아를 나타내는 대아로 더 큰 의미를 내포한다. 대아실현은 이기적 자아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며, 깨달음을 통하여 나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일깨운다.

3. 교육내용(지식관), 교수학습방법, 평가

생태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지식관은 다음과 같다. ① 인간과 자연과의 상생적 삶에 정당한 생태적 합리성을 토대로 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식이어야 한다. ② 지식이 인간의 삶에 있어 어

면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를 수반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③ 현실의 생활을 반영하고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총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이어야 한다. ④ 지식은 전체적인 의미와 가치들 속에서 상호관련성과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재구성되어야 한다. ⑤ 영성, 감정, 직관 같은 인간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식관을 바탕으로 교육생태학적 지식을 체계화할 때에는 학습자가 다음과 같은 능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생태학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자연과 조화된 생활양식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② 공동작업에서 서로의 능력과 역할을 파악하여 자신의 위치에서 가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생태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학생 자신이 습득한 교육생태학적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비생태학적 상황에 부딪혔을 때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노상우, 2003; 정영희, 2006; 이정은, 2013; 노상우, 2015).

생태주의 철학과 지식관을 교육 현장에서 다룰 때, 학생과 교사는 함께 배워나가는 주체성을 지닌다. 그리고 세분화된 지식 전달방식이 아닌 주제 중심의 교과 경계를 넘어서 통합교과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제 중심의 협동학습은 개별 교과나 학년의 경계를 넘어 교사와 교사간,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상호 소통적인 교육의 장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교사와 학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교사는 지역사회의 연장자와 같은 이들도 교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정영희, 2006; 노상우, 2015).

생태적 전환에 따른 교육에서 평가는 자연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개인이 내적으로는 건강한 자아를 지니고 있는지, 외적으로는 다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지를 다뤄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교육 상황에서 봤을 때, 생태학적 접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평가는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교육과 관련된 선택 중 최선의 결정을 위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가치판단을 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이를 위해 여러 줄 세우기, 과정적 지식 중심, 역동적 평가, 질적 방법 위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생태학적 타당도와 체제적 타당도가 중시되어야 한다(이정은, 1995; 백순근, 2002).

II. 고등교육의 생태적 전환에 대한 가능성 탐색

1. 고등교육 차원에서 생태적으로 다루어지는 교육의 모습

앞에서 정리한 생태주의에 따른 교육의 철학, 지식관(커리큘럼),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은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본 절에서는 고등교육 차원에서 교육의 생태적 전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오종욱(2018)은 현재 고등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대학 이념은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고 인식론 불균형을 초래하며 공익 역할을 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생태주의 대학 이념은 신자유주의 대학 이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고등교육 차원에서 생태주의를 고려하여 관련 논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학자는 영국의 런던대학교 교육학과 소속인 Ronald Barnett 교수이다. Barnett은 초복잡성 사회와 생태주의에 따른 고등교육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본 3절에서는 Barnett이 설명하는 생태주의 대학에 대해 정리를 하고, 2절에서 다룬 생태주의에 따른 교육의 모습과 Barnett의 생태주의 대학을 참고하여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생태주의적인 속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Barnett의 생태주의 대학

Barnett (2011)의 생태주의 대학은 네트워크 대학이며 그러한 네트워크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관리한다. 생태주의 대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 환경에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관계를 개발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생태주의 대학은 학습과 탐구를 통한 이해 증진에 관심과 더불어 가능한 기여를 통해 영향을 미쳐 세계의 모든 측면의 웰빙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생태주의 대학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이러한 생태주의 대학은 사회와 세계의 여러 위기에 대응하는 책임을 지기 보다 오히려 학습, 탐구, 개발과 같은 활동을 통해 세계와 상호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Barnett, 2011).

Barnett(2011)은 생태적 대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정리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역 그리고 전 지구적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안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하고, 생태적 대학의 학습 및 연구 활동, 그리고 대학의 연구자들은 연구 활동을 시민사회와 공동체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태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대학들과 연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민사회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활기있게 추진한다. ② 학문 활동을 온라인에 올린다. ③ 공개강좌를 열어 그 내용을 온라인에 올린다. ④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지방이나 지역 당국 공동체 제3섹터 집단들과 협력한다. ⑤ 개발도상국가의 집단 혹은 공동체와 함께 일한다.(문화 프로젝트, 기술 및 사회 프로젝트 등) ⑥ 무료로 자문 및 상담을 제공한다. ⑦ 공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를 개발한다. 컬렉션이나 아카이브는 대중이 최저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책자를 발간한다. ⑧ 관심을 끄는 문제들을 다루고, 지역적으로 혹은 지구적으로 교통과 박탈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만한 연구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⑨ 대학인들이 공적인 지식인이 되어 상상력을 발휘하여 미디어를 활용하여 공중들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며 공공영역을 발전시킨다. ⑩ 수강생들이 다른 나라의 수강생들과 교류하여 국가와 문화를 초월하는 학습 공간을 개발하고, 대학생들이 지구촌 시민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⑪ 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수행하는 사회 지향적 활동들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⑫ 학문 영역 간의 상호연계를 증대시키고, 공적 지향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⑬ 생태적 사고를 촉진시키기 위해 전 세계의 대학과 협력을 한다. ⑭ 일반세계에 대한 압력하는 대학의 사명이 실제 생활이나 활동에서 분명히 나타난다면 부분적으로 공적 지원을 제공한다.
--	---

[그림 1] 생태적 대학을 위한 생태적 사고 촉진 방법 (출처: Barnett, 2011: 394-395, 재구성)

정리하면 Barnett의 생태주의 대학과 관련된 다양한 생태계와의 상호연관성을 증진하고, 지속가능성, 잘살, 개선에 기여하는 대학 이념이다. 이런 생태주의 대학 이념에 따라 생태주의 대학은 대학이 맺고 있는 주체들과의 상호연관성을 증진하여 대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대학의 인식론적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현재 대학의 이념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2) 고등교육의 생태적 전환에 대한 가능성 탐색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하여,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할 요건들을 중심으로 대학의 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정기관에 의한 기관평가인증이 있다. 본 절에서는 '생태적 전환에 따른 교육과 '생태주의 대학'에 대한 개념 정리를 바탕으로 기관평가인증 평가 지표(<표 1>)¹⁾에 따른 S대학교의 2015년 자체평가보고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1) S대학교는 1주기 평가 이후 2015.1.1~2019.12.31 동안 인증대학으로 등록되어 있다.
(출처: 한국대학평가원 홈페이지 인증대학 현황)

제36회 기독교학문학회 발표논문 (19.10.26)

<표 1> 기관평가인증의 평가 기준 (일반대·산업대, 1주기)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1.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1.1 대학사명	1.1.1 교육목표	4. 교육시설	4.1	4.1.1 교사 확보율<필수평가준거>				
	및 교육목표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수립		교육기본시설	4.1.2 강의실 확보율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평가			4.1.3 실험 실습실 확보율				
	및 특성화	1.3.1 자체평가 수행			교육지원시설	4.1.4 실험 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			
						4.2.1 기숙사 확보 현황			
	1.3 자체평가	4.2.2 학생 복지시설							
		4.2.3 장애학생 지원시설							
		4.3 도서관				4.3.1 도서관 운영			
	2. 교육	2.1 교과과정				2.1.1 교과과정과 교육목표	5. 대학재정 및 경영	5.1 재정	5.1.1 재정 운영 계획 수립
						2.1.2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확보	5.1.2 세입 중 등록금 비율
						2.1.3 전공교육과정의 편성·운영			5.1.3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률(사립대)
						2.1.4 실험·실습·실기 교육			5.1.4-1 세입 중 기부금 비율(국공립대)
						2.1.5 산업체 및 사회 요구에 기반 한 교과과정 편성·운영			5.1.4-2 세입 중 법인전입금 비율(사립대)
2.1.6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5.2 재정 편성 및 집행			5.2.1 예산 편성 절차와 방법			
2.1.7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5.2.2 교육비 환원을					
2.2 교수·학습			2.2.1 수업 규모	5.3 감사		5.2.3 장학금 비율			
			2.2.2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예산		5.3.1 감사제도				
2.3 학사관리			2.2.3 교수·학습 개선 노력		5.3.2 감사결과 활용				
			2.3.1 학사관리 규정						
2.4 교육성과			2.3.2 성적관리						
			2.3.3 수업평가						
	2.3.4 성적우수자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조치								
	2.4.1 졸업생의 취업률								
	2.4.2 교육만족도								
3. 대학구성원	3.1 교수	3.1.1 전임교원 확보율	6. 사회봉사		6.1 사회봉사	6.1.1 사회봉사 정책			
		3.1.2 교원 임용의 절차와 방법			6.1.2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지원				
		3.1.3 비전임교원의 활용							
		3.1.4 교수업적평가제도의 운영							
		3.1.5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3.1.6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3.1.7 교수의 연구실적 및 연구비							
		3.1.8 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							
		3.2 직원		3.2.1 직원 규모					
				3.2.2 직원인사제도의 운영					
		3.3 학생		3.2.3 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복지					
				3.3.1 학생선발 절차 및 방법					
				3.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을					
3.3.2 정원내 신입생 충원을									
3.3.3 정원내 재학생 충원을									

위의 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S대학교의 2015년 자체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관평가인증 기준의 모든 평가영역에서 생태주의적인 속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때문에 우선 교육 철학과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을 전개하고, 생태주의적인 속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던 추가적인 항목(대학구성원, 교육시설)에 대한 분석내용을 붙이고자 한다.

① 교육 철학

S대학교의 대학이념은 열림, 나눔, 섬김이다. 여기에서 열림은 가족주의의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과

사회와 소통하여 평화를 이루는 것이고, 나눔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과 재능을 이웃과 공유하는 봉사의 실천을 통해 공의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섬김은 하느님과 내 이웃을 섬김으로써 존중하는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S대학교는 이러한 이념을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학풍의 초석으로 보고, 교육의 목표와 연계하여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S대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이념을 실현하고자 한다(S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2015: 25-26). S대학교는 1차 장기발전계획에서 대학의 교육이념 아래 '공동체형 명문 대학'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인권과 평화'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S대학교는 자체적으로 '인권과 평화의 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해왔다는 평가를 내렸다. 2차에서도 1차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한 미래상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평화 공동체 대학'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특성화영역에서 '아시아와 함께하는 시민사회·산학 공동체 대학' 및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교육에서 강조하였다. 그 결과 S대학교는 지역사회 및 아시아 지역과의 연대, 작은 규모를 활용한 학생 밀착 지도 등으로 S대학교만의 특색을 지닌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대외적으로도 명확한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S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2015: 27).

S대학교의 대학이념은 앞에서 생태학적 사유방식에서 언급한 내용 중, 상호연관성에 대한 인식, 공존의 논리, 생태윤리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또한, 발전계획과 특성화 차원에서 S대학교는 Barnett의 생태적 대학의 속성 중, '④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지방이나 지역 당국, 공동체, 제3섹터 집단들과 협력한다.', '⑧ 관심을 끄는 문제들을 다루고, 지역적으로 혹은 지구적으로 고통과 박탈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만한 연구를 한다.', '⑩ 수강생들이 다른 나라의 수강생들과 교류하여 국가와 문화를 초월하는 학습 공간을 개발하고, 대학생들이 지구촌 시민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⑫ 학문 영역 간의 상호연계를 증대시키고, 공적 지향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⑬ 생태적 사고를 촉진시키기 위해 전 세계의 대학과 협력을 한다.'와 맞닿아 이해할 수 있겠다.

② 교육과정 운영

S대학교는 교육이념 아래 기독교적 인간, 주체적 인간, 공동체적 인간, 봉사하는 인간이라는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공교육의 목표는 미래를 내다보는 창의적 전문인, 현실을 생각하는 협동적 직능인 육성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교양교육의 목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비판적 교양인, 인권과 평화를 실현하는 지구촌 시민 육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교양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 생태, 평생교육, 철학, 종교, 인문학 등 다양한 주제의 과정으로 구성하였다(S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2015: 45). 정영희(2006)는 교사는 지역사회의 연장자나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을 교사로 충분히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 측면에서 S대학교는 전공별로 현장실습 및 인턴십을 진행하였고, 기관이나 산업체와 협력하여 현실적인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S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2015: 52).

정영희(2006)는 상호 소통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의 교사와 학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측면에서 기관평가인증에서 수업 규모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 역시 생태주의 교육에 맞닿아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1주기 당시, 20명 이하 강좌는 25% 이상이 되어야 하고, 101명 이상 강좌는 2.5% 이하로 기준을 두었다. S대학교는 이 지표에서 '충족'을 보였으며, 추후 글쓰기와 같은 과목에서 실제적인 지도를 위해 소규모 강의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S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2015: 57). S대

학교의 경우, 관련 내용은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조직 현황', '교수 역량 강화 지원 운영 현황', '학생 학습 역량 강화 지원 운영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S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2015: 58-61). 이러한 내용은 생태주의 교육에 가까운 교수학습 방법을 강구하는데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있어 해당되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S대학교의 '학생 학습 역량 강화 지원 운영 현황'을 보면(S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2015: 60-61), S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소규모 단위에 혹은 학생이 주체적으로 본인의 관심과 전공을 개발시키기 위한 활동에 지원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교내 연구소 학술활동에 참여하거나, 학생이 주도적으로 소규모 공동체를 형성하여 주제를 정하여 학술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다. 이는 이은정(1999)이 말하는 '꼭 짜여진 틀이 아닌, 경계를 넘나들면서 상상력을 실험하는 시도'를 허용하는 틈, 자유로운 탈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맥락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S대학교는 열림, 나눔, 섬김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봉사를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봉사 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회봉사를 하고자 하였다. 또한, 홀트아동복지회 미혼모 시설을 방문하거나, 인권재단 사람 동화도서관 구축을 하기 위한 노력, 해외 청소 봉사, 인천 유기견 보호소 방문 등의 활동과 같은 사회봉사와 관련된 과목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완수하고자 노력을 하였다(S대학교, 2015: 103-105). 이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영역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이나 실천을 하기 위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을 한 노력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생태적으로 사고했을 때, 우선 앞에서 언급한 생태주의 사유방식 중, 상생의 정신, 공존과 사회연관성의 관점에서 S대학교의 사회봉사를 이해할 수 있겠다. 또한, Barnett(2011)이 말하는 생태주의 대학의 속성 중, '① 시민사회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활기차게 추진한다.', '⑧ 관심을 끄는 문제들을 다루고, 지역적으로 혹은 지구적으로 고통과 박탈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만한 연구를 한다.', '⑩ 수강생들이 다른 나라의 수강생들과 교류하여 국가와 문화를 초월하는 학습 공간을 개발하고, 대학생들이 지구촌 시민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⑭ 일반세계에 대한 염려라는 대학의 사명이 실제 생활이나 활동에서 분명히 나타난다면, 부분적으로 공적 지원을 제공한다.'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③ 대학구성원 (교수, 시간강사, 학생)

앞에서 사회적 문제의 근본을 생명망각, 생명경시로 봤을 때, 산업문명, 기계문명을 넘어 인간 정신 분열, 노동소외, 환경파괴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은 생명의 가치관 확립운동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사유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생태사회주의를 언급한 적이 있으며, 생태사회주의는 노동과 자본, 인간과 자연의 갈등을 해결하여 생태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생태적으로 인간의 삶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자연이 인간의 지배 및 착취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동도 자본주의 굴레 안에서 대상화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와 복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기관평가 인증의 평가지표 중, 생태주의에 비추어 봤을 때, 인간의 노동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한 처사로 여길 수 있겠다. S대학교의 경우, 특이할만한 점은 시간강사를 외래교수라고 표현을 하였다. 노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시간강사가 대학에 기여하는 값진 노동에 존중의 의미를 더해 외래교수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이해가 된다. S대학교는 일차적으로 외래교수의 처우와 복지를 위해 최소요구 충족기준을 모두 달성하였으며, 특히 외래교수 복지를 위해 '노동조합 추천 강의'를 개설²⁾하고, '노동조합 근로시간명제자 활동비'를 지급³⁾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배정⁴⁾하여 외래교수의 노동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S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2015: 76).

Barnett(2011)은 생태적 대학의 학습 및 연구 활동, 그리고 대학의 연구자들은 연구 활동을 시민사회와 공동체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측면에서 기관평가인증의 '지식 및 기술의 사회와 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대학이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한 지표로 Barnett의 생태주의 대학 이념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 평가기준은 '지식, 기술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교육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와 '정부, 지자체, 기업, NGO등과 공동/위탁하여 연구개발 협력을 하고 있다.'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으로 S대학교는 14개의 연구소⁵⁾를 설립하여, 정부, 지자체, 기업, NGO와 함께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부천희망재단, S대학교 3개의 주체가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공익활동 교육과정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관-학 교육협력모델을 창출하고자 하였다(S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2015: 77).

S대학교는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사회배려학생 지원(S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2015: 92-93)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선보였다. S대학교는 '대학은 다양한 학생복지시설을 구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평가기준을 세워 관련해서 자체적인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사회배려학생 지원과 관련된 평가 내용을 참고했을 때, S대학교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대학교 캠퍼스에서 어느 누구 소외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배려학생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생태주의와 맞닿아 있는 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S대학교는 사회배려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재활시설 실습 및 상담경력을 지닌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소지자에 한해서 사회복지전공자 직원을 배치하여 학교의 사회배려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④ 교육시설

노상우(2003, 2015)에 따르면, 생태적 학습지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 기관평가인증의 '4. 교육시설' 관련 평가준거 중, '4.1.1 교사 확보율', '4.1.2 강의실 확보율', '4.1.3 실험실습실 확보율', '4.1.4 실험실습 기자재 구비 정도'는 대학생들의 학습이 생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 다만, 확보율에만 그치는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 구성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다. 특정 과목이나 학년의 경계를 넘어선 교수간, 교수와 학생간,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2) S대학교는 매 학기 노동조합에서 3과목의 강좌 개설을 담당교수를 지정하여 대학에 추천하고 대학은 교과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좌를 개설하였다(S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2015:76).

3) S대학교는 매월 9시간에 대한 시간강의료를 근로시간명제자 활동비로 지급하며, 해당 외래교수가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강의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S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2015:76).

4) S대학교는 본교 캠퍼스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였다(S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2015:76).

5) 노동사연구소, 민주주의연구소, 민주자료관, 신학연구원, 동아시아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사회적기업연구센터, 평생학습사회연구소, 경영유통연구소, 정보통신연구소, 크리에이티브아트센터, 문화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S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2015:77).

서는 생태주의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협동학습, 프로젝트학습, 주제중심학습, 융복합 전공 및 학습과 같은 교수학습방법을 얼마나 구현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S대학교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관 시설 및 정보화가 구축되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평가기준에 따라 전자정보박람회, 글쓰기 대회, 저자와의 대화, 문화 이해 프로그램(Let's talk)을 진행하였다(S대학교, 2015: 101). 도서관에서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이은정(1999)이 말하는 '깎 짜여진 틀이 아닌, 경계를 넘나들면서 상상력을 실험하는 시도를 허용하는 틈, 자유로운 탈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맥락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도서관은 여전히 학교 안에 있는 공간이지만 수업을 벗어난 활동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것을 시도하는 데 있어 징검다리 같은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및 논의

우리나라의 기관평가인증 평가기준과 S대학교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생태주의적인 속성을 좀 더 가미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생태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관평가인증의 평가 기준에 따라 설명을 하면, 첫 번째, 교육철학 차원에서 대학사명과 발전계획을 참고했을 때, S대학교처럼 공동체적인 소성과 공의로운 사회를 형성하는데 있어 대학의 사명과 책무성을 생태주의적인 속성과 연결 지을 수 있다. 두 번째, 교육과정 운영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이 대학교 안팎을 넘나들 수 있도록 국내에서는 지역사회의 전문가 혹은 산업체 연계 학습, 국외로는 지구촌 시민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조장하는 것 역시 생태주의적인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양과 질적으로 개발하고 늘리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교수학습에 있어 생태주의적인 측면에서 교수학습이 주제 중심, 프로젝트 기반, 범교과, 융복합적인 학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비록 S대학교의 2015년 자체평가보고서 분석에서는 구체적인 학생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논의를 정리하는 맥락에서 백순근(2018)의 생태주의적인 교육 평가에 대한 설명을 고려했을 때, 대학의 교육성과 역시 생태주의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이를 위해 전혀 다른 시각과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긴 할 것이다. 세 번째, 대학구성원에서는 노동하는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 교수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수의 학문적 성과가 사회에 산업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교의 교수들과 직원들은 한 조직의 구성원들이며, 이들이 공동체적인 분위기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네 번째, 교육시설에 관한 것이다. 생태적 학습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태적 공간 구성이 필요한데, 대학생들의 학습이 협력, 상호의존, 공동체적인 속성이 드러나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등교육의 생태적 전환에 대해 제기될만한 쟁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첫 번째, 모든 대학이 생태적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S대학교는 특성화 방향을 '생태'로 삼아 국가의 고등교육 정책을 충분히 수행하면서도 생태적인 속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였다. 이는 생태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자연보호 NGO에서 실시하는 생태교육 프로그램처럼, S대학교가 특성화를 '생태'로 삼기 위해 동식물을 다루는 자연대학 혹은 생물학 전공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방향 그

리고 가치 차원에서 생태주의적인 속성을 대학운영에 반영을 한 것이다. 정영희(2006)에 따르면 지식은 인간과 자연을 포함하는 총체적 지식이 되어야 하며, 이것은 분과적 학문에 의한 지식보다는 학제적 학문의 연구로부터 도출된 지식이 더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에 관한 지식을 교육과정에 도입할 때에는 환경교육이나 생태교육이라는 교과적 지식보다는 교육과정 전반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상관성을 보여주고 인식할 수 있는 방향의 지식 구성이 필요하다. 이는 생태주의적인 속성을 교육과정 전반에 입히기 위해서는 S대학교처럼 대학 이념에서부터 생태주의적인 속성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 생태주의적인 속성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모든 대학이 생태를 특성화 방향을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생태주의적인 철학이 필요한 시점에서 교육 전반적으로 생태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면 고등교육에서도 교육철학차원에서 생태적인 속성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생태주의적인 속성이 평가에서 다뤄져야 하는 지에 관한 것이다. 생태주의를 교육에 반영할 때, 결국 누가 1등인지, 꼴등인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한계를 인정하고,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본래적 속성이 될 것이다. 누가 1등인지, 꼴등인지 가르는 것은 상대주의적인 관점이고, 각자의 한계를 기준으로 이상적인 수준 혹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이끌어주는 것은 절대주의적인 관점일 것이다. 이는 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발전 내지 성숙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핀란드 교육에서는 수학 교과 수업은 여러 학년의 학생들이 함께 특정 주제의 수학 수업에 모여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의식 안에서 학습을 한다. 여기에서 수업 진도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기보다 개인의 속도에 따라 달려있다. 평가 역시 모두 100점을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보다 얼마만큼의 발전이 있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의 것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속성을 고려했을 때, 생태주의적인 속성을 가진 학교의 평가도 상대주의 및 선발을 위한 평가와 더불어 개인의 성장을 고려한 절대주의와 기다려주고 이끌어주기 위한 평가로 이해할 수 있겠다. 때문에 생태주의적인 속성이 평가에서마저 다뤄져야 하는 지에 관한 문제는 그 평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답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노상우(2003). 생태적 담론의 교육학적 함의 : 새로운 생태교육관의 모색. *교육학연구*, 41(1), 한국교육학회, 1-21.
- 노상우(2015).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위한 생태교육학』. 파주: 교육과학사.
- 노상우·김관수(2007). 생태주의에서 본 교과관과 교육방법. *교육종합연구*, 5(1), 75-94.
- 노상우·이강남(2004). Murray Bookchin 의 사회생태론의 교육적 함의. *교육학연구*, 42, 227-247.
- 노상우·張明(2014). 노자의 천지인 (天地人) 사상과 생태교육적 함의. *교육종합연구*, 12(1), 51-70.
- 노상우·황신태(2004). 개인연구: 신화적 사고에 나타난 생태교육학적 의미-Levi-Strauss 와 나카자와 신이치의 신화론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32, 91-121.
- 박복선(2018). 마을학교라는 실험. 성미산학교 블로그에서 인용.
<https://blog.naver.com/transungmi/221301202041> (2019.10. 접속)
- 백순근(2002). 학습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이 교육평가에 주는 시사점. *아시아교육연구*, 3(1), 27-42.
- 성공회대학교(2015). 2015학년도 성공회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 오종욱(2018). 새로운 대학 이념으로서 생태주의 대학 이념. *교육철학연구*, 40(2), 53-73.
- 이상오(2010). (심층)생태학적 인간이해를 통한 교육 패러다임의 재구성. *교육문제연구*, 36, 57-80.
- 이은정(1999). 교육생태학의 성립 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정은(2013). 교육생태학의 교육학적 함의.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정영희(2006). 교육생태학의 구성 방향에 대한 연구. *교육학연구*, 44(4), 167-193.
- 조순영(2009). 한국 전통 태교의 교육생태학적 이해. 박사학위논문. 한국학대학원.
- Barnett, R.(2011). Being a university. 이지현 역(2011). 『대학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서울: 학이당.